

화상디자인, 다양한 영역으로 진보

화상디자인이 친환경·산업기기 분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허청 따르면, 컴퓨터 모니터를 비롯해 휴대폰, 텔레비전과 같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가진 물품의 액정화면에 표시되는 아이콘·캐릭터와 같은 도형을 디자인 권리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화상디자인 출원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상디자인 특허출원은 2003년 184건에서 2004년 408건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2007년까지 400건 안팎으로 출원돼 왔으나, 2008년에는 2003년에 비해 540% 증가한 987건이 출원됐다.

최근에는 유비쿼터스가 보급으로 디스플레이 패널을 가진 물품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상디자인이 표시되는 물품이 다양해져 2003년 7개 물품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에는 29개 물품에서 출원되고 있어 당초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화상디자인 수준도 아이콘의 창작 수준에서 비약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다양한 아이콘의 창작과 배열은 물론 화상디자인 구성을 손으로 조작하는 터치 개념도 보편화됐으며 앞으로도 IT 및 관련 산업의 발달과 함께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9/04/16>